

③ 도시와의 교류에 의한 어촌의 활성화 방안

# 블루투어리즘 추진에 의한 도시와의 교류 추진

## 1. 서 언

연안역의 여기저기에 형성된 어촌은 독특한 문화의 형성·계승이나 어업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통하여 연안역 환경의 보전, 해난구조에 대한 공헌,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장의 제공 등 다면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 근래 학교 주5일제의 완전실시나 장기휴가의 실시추진 중에서 국민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 되어가고 그에 따라 어촌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력있는 어촌만들기를 통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추진하고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의 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 2. 수산기본법과 관련정책에 있어서의 위치 부여

2001년 6월 29일에 제정된 수산기본법에서는 「수산물 안정적공급 확보」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국가는 국민의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이 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위하여 도시와 어촌과의 교류 촉진, 유어선업의 적정화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와 어촌의 교류는 국민의 수산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서 수익기회의 증대 등 어촌의 경제기반 강화나 정주환경의 개선 등에 의하여 어촌의 진흥이나 지역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산업의 진흥상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 농산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을 공생·대류해야 할 관계로 받아 들이고, 도시주민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고향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의 주민에게는 도시가 갖는 매력을 확보하는 등 도시와 농산어촌 쌍방의 주민이 부유함을 누리며 서로 대류가 생기는 농산어촌만들기를 지향하여 도시어촌교류는 양자의 대류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또, 수산기본법을 받아들여 수산기본계획, 어항어장정비법,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등에 있어서 도시어촌교류를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내세우고 있다.

### 3. 도시어촌교류란?

#### ○ 도시어촌교류의 의의

도시어촌교류란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말이 국민사이에서 널리 정착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푸르름이 있는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그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활동」이라고 한다. 한편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은 「섬이나 연해부의 어촌에 체재하여 매력적이고 알찬 해변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는 여가활동의 총칭」이다. 즉, 블루투어리즘(어촌에서의 체재형 여가활동)은 그린투어리즘의 어촌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어촌교류의 정착·대상·의의·역할·효과·수법 등은 막연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소에서는 도시어촌교류를 다음 5가지 관점에서 파악하여 조사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 도시어촌교류의 5가지 관점

- ① 체험학습의 장 만들기
- ② 자연과 공생축진
- ③ 어촌으로 UIJ턴 지원
- ④ IT활용에 의한 e-어촌 비즈니스 지원
- ⑤ 요양이나 건강증진의 장으로서 어촌만들기

#### ○ 도시어촌교류가 지향하는 것은?

도시어촌교류가 지향하는 것은 교류를 통한 어촌지역의 활성화이다.

도시어촌교류활동의 실시에 의하여 기대되는 어촌진흥상의 의의나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상정된다.

#### 어촌진흥상의 의의·파급효과

- 어촌경제파급효과
- 고령어업자 등의 취업기회 창출
- 지역의 커뮤니티(communitiy) 활성화와 스스로가 입각하는 어업과 지역의 재평가
- 도시이용자의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의 조성
- 어장·자원이용조정과 자원관리
- 어촌과 도시의 공동활동으로 발전
- 어촌의 생활환경이나 최저생활 보장제 정비 등

요컨대,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의나 효과가 상정되는데 이와같은 의의·효과에 의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 ○ 도시어촌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어촌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들 효과를 발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의·역할과 함께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어촌교류는 어촌에서 필요한 것을 가진 도시측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촌측이라는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어촌교류의 배경에 「공생·대류」라는 말이 있다. 「함께 살고, 「쌍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그

것은 「사람(마음)·물건·정보」의 공생·대류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를 추진하는데는 ①도시측 움직임의 지원 ②도시와 어촌의 유대강화 ③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어촌의 매력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도시와 어촌의 쌍방향으로 오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을 향해서 도시에도 열려진 매력과 활력있는 어촌만들기(하드정비)와 교류시스템(소프트 구축)의 연휴(하드와 소프트의 일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도시어촌교류 추진협의회의 설립

도시어촌교류에 관심을 가지는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관계자가 모여서 과제나 대응책에 대해서 정보교환이나 자질의 향상을 추진하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 전국의 도도부현, 시정촌, 수산관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도시어촌교류추진협의회」가 설립되어 당 연구소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다. 현재에는 약 120단체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본 협의회는 지방공공단체가 지니는 도시와 어

촌과의 교류에 관한 각종 과제나 대응방책에 대하여 검토·연락·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교환, 과제의 연구·연수 등 인적교류,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나 요구 등을 행하기로 하였다. 설립총회에 이어서 행하여진 특별강연에서는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과장으로부터 「도시어촌교류에 있어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중의원의원으로부터 「도시에서 본 어촌의 매력에 대하여」가 강연되었다.

○ 심포지엄 「도시어촌교류의 담당자들의 개최

당 연구소에는 수산청의 위탁을 받아 이하의 도시어촌교류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① 도시어촌교류대책사업
- ② 중산간 지역 등에 있어서 자연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책조사
- ③ 도시어촌정보 순환촉진사업

이중 도시어촌교류대책사업에서는 교류정보의 수집·정리, 도시어촌교류의 의의 등에 관한 보급개발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서 수산청, (사)전국어항협회, 도시어촌 교류추진협의회 회원에 의하여 11월 29일에 「도시어촌교류를 생각하는 심포지엄~도시어촌교류의 담당자들~」을 개최하였다.

도시와 어촌의 교류에 있어서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서 남을 위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본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어촌교류의 현상이나 가능성, 전망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착하기 위한 키워드(Key word)로서 교류활동을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자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와 어촌의 교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것을 목적



〈사진-1〉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중의원의원의 특별강연

으로 개최하였다. 수산관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정원 250명이었으나 전국에서 약 4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참가해 주었다.



〈사진-2〉 심포지엄 풍경

기조강연에서는 이마무라 쓰카사(今村司)씨(일본 텔레비전 방송국(주) 프로듀서)로부터 「『자! 철완DASH!!』DASH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일차 산업에 대한 열띤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전국 각지의 교류사례가 발표되고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담당자들에 초점을 맞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 하에서 각지의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착실한 노력·정열·끈기에 입각한 활동이 중요하며 인재육성이나 사람의 유대와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명백해졌다.

#### ○ 기타의 대처

도시어촌교류는 앞으로의 어촌지역 활성화를 떠맡을 기둥의 하나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각각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좋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을

베이스로한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파악·분석하여 문제점·과제의 추출, 효과의 검증을 하고

- 도시어촌교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작성
- 전국의 교류정보 축적(데이터 베이스화)
- 모델지구에 있어서 교류활동 실천활동
- 도시어촌교류축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 보급개발활동
- 받아들이는 체제나 지도자의 육성 프로그램
- 정보순환 시스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도시어촌교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의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이나 NPO단체 등 교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 4. 금후의 전개에 대해서

도시어촌교류는 막 시작되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지방공공단체, 어협, NPO 등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① 도시어촌교류 시스템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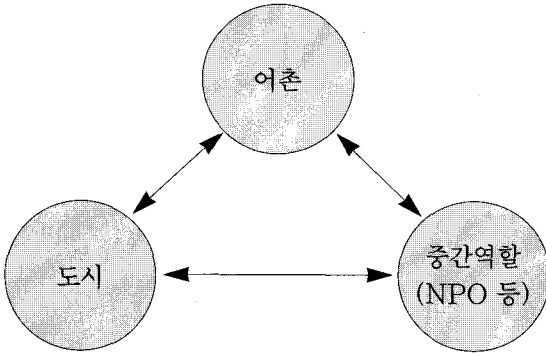
신마리노베이션 구상에서 「블루투어리즘 추진에 의한 도시와의 교류추진」을 시책으로 내걸고 있다. 이 구상에서는 신마리노베이션 거점교류추진 종합정비(교류정비계획)가 책정되어 교류의 장 만들기(기반정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방책은 각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모색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금후 도시어촌교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도시어촌교류의 의의, 역할, 효과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활동방법을 확립하여 모델지구에서의 실천에 따라 그 방법과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도시어촌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② 사람과 사람과의 제휴구축

도시어촌교류를 추진하는 데는 도시와 어촌의 대화·마음의 연결이 필요하고 양자의 중간역할로서 NPO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와 어촌 사이에서 「사람(마음)·물건·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어촌관계자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이나 NPO단체와의 제휴구축이 불가결하다.



〈그림-1〉 제휴구축의 모식도

③ 정보의 축적과 공유

도시어촌교류의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가 산적되어 개개의 지방공공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는 곤란하다. 이 때문에 전국의 어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정보를 축적·공유하여 관계자가 힘을 합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언

근래,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이나 음식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산업이 갖는 식량자급의 역할에 관심도 적어지고

있고, 수산업·어항어촌을 둘러싼 환경은 도시의 이론에 놀리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근래의 정세 하에서 어촌의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도시부에 전달·PR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어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환에 의한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촌이 갖는 역할이나 좋은 점을 도시주민에게 이해시켜 서로가 교류함으로써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도시주민에게 수산업·어촌을 이해시키는 일, 어촌주민이나 장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의 의식이 조성되는 것이 도시어촌 교류의 최대의 효과이고, 도시와 어촌 서로의 공생·대류에 의한 사람들의 마음의 유대나 의식의 조성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최대의 힘이다.

당 연구소에서는 도시와 어촌의 교류에 의한 전국의 어촌지역 활성화를 지향하여 도시어촌교류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나 도시어촌교류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의 연구소」를 신조로 하여 조사·연구·축적되는 정보를 전국에 소개하려 한다. 또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여러분으로부터 정보제공이 불가결합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